

# 교육·포교·복지 '집중투자'

## 조계종 내년예산 어떻게 쓰이나

조계종의 내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3.33%인상된 2백44억9천만원 규모다. 이는 일반회계 1백47억 5천만원과 불교 종합회계 26억, 중앙승가대 이전 특별회계 30억 신도교무금 특별회계 11억 4천만원이 합쳐진 것.

조계종 총무원이 1일 총무원회의를 거쳐 중앙총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종단의 핵심사업인 승가교육과 포교예산,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사업, 복지, 문화유산보존 등에 중점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 중앙부담금과 특별부담금을 중점회계로 분류하고 관할료부담금 미수권담금을 상향조정해 분담사의 부담금 부담을 덜어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일부터 15일까지 회기로 열리고 있는 중앙총회에서의 심의결과를 앞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내년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 분야별 특징을 정리해 본다.

**총무원** 중정경실, 원로회의, 총무원장실, 호계원, 법규위원회, 중앙승가대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총무원의 내년 예산총액은 56억6천8백만원 규모다. 총무부는 교구 보조금을 전담도당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의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편성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관련 예산의 현실화와 저소득층의 불교행사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2억 7천2백만원을 봉축행사비로 책정했다. 특히

총무부는 내년에 종단의 문장(紋章)을 개발 종단의 이미지 통일작업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 2천8백5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다.

문화부는 불교문화청담과 성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에 이어 실시되는 제2차년도 사지현황조사와 성보관리자 연수교육을 위한

## 승가대 이전 30억·불교회관 26억 편성 관할료 분담금 증액...포교연구비 10배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각각 2천4백만원과 1천1백만원을 편성했다. 산하조직인 성보보존운영위원회의 운영예산 3천만원에서 7천2백만원으로 1백% 이상 증액하고 성보관리 예산도 1백70만원에서 4천6십만원으로 대폭 늘린 것은 성보관리를 위한 종단적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재무부의 경우 망실재산 환수에 1천4백50만원을 투입 중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사회봉사단 운영조직단체 구성 및 지원사업 예산을 2천3백만원 책정한 사회부는 대사회부문 개발과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사회부는 복지시설 운영의 개화를 위해 불교사회복지재단에 금년보다 1억2천만원을 인정한 4억2천만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실은 내년에 2차로 중앙총무기관의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증발령 해설사 발간에도 2백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교육원** 교육원의 내년예산 총규모는 34억6천여만원이다. 교육원의 내년 예산은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재교육에 집중 편성됐다. 4년제 정규대로 승격된 중앙승가대학교와 지방승가대, 승가대학원이 대한 보조금 등 기본

이은 <선원총람> 발간사업과 한글대장경 번역사업 발간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

**포교원** 종단의 중점사업인 포교와 전법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에 따라 포교원의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26.65%인상된 18억 4천9백여만원이 책정됐다. 포교원은 신도행정과 관련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등록된 10만명의 신도관리를 위한 전산자료 입력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법회와 설법>지의 발간과 청소년불자연합 파티미터에 대한 지원도 지속키 위해 각각 1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종교평화정책 등에 대응키 위한 특수포교비 2천여만원을 새로 책정하고 신행체계화 연구사업과 주요신행프로그램 연구사업 등 포교연구비 금년 5백만원에서 5천7백만원 규모로 상향조정했다.

임연태 기자

## 종단 3대사업 활성화 기틀

### 중앙승가대 역경·포교사회학과 증설 의미

중앙승가대학교(총장 방지하)의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증설은 정규대학 승격 이후 명실상부한 불교종합대학으로서 위상정립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중앙승가대는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4개 학과를 설치해 왜 한국불교의 주요 3대 사업인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역경학과는 정규대학 차원에서는 처음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역경의 중요성에 비해 역경직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교계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역경사업의 가장 큰 장애로 지적돼온 것이 역경인력의 부족으로 역

경학과는 이를 해소할 산실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포교사회학과 신설은 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 현대화의 과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교발전을 진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포교를 사회에 접목시키고 양적으로 팽창하는 포교사업의 자질함양과 포교사의 학문적 체계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역경학과와 포교사회학과 증설로 인해 관련 학과와 연구활동을 통한 연구소 추진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불교학계의 희망찬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토진종 오타니 코오신(大谷光眞·52) 문주(종정)가 5일 동국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오타니 코오신 문주는 동경대학교 문학부 인도철학과 및 동국대 인도철학, 영국대학 석사과정 진종학과를 졸업했으며, 77년 정토진종 본원사파 문주에 취임해 일본 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인물. 일본 영국대학과 동국대학교와의 자매결연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 학위수여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

## 수요

### 인터뷰

동국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받은  
日 정토진종 오타니 코오신 문주

## "일본불교 뿌리는 한국입니다"

를 배우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한국이나 동국대학교에 대해 잘 알지는 못 합니다. 학위를 받고 보니 양국의 문화적·학문적 교류를 위해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88년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영국대학 방문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 후 1년에 한번 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학문적 교류와 우의를 쌓아 왔습니다. 그녀는 동안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92년에는 정식으로 동국대학과 자매결연까지 맺었습니다. 12월 개최 한일불교문화 공동조사연구 대회에서 양국 실무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 학위 수여식 기념강연을 통해 일본불교의 근원이 한국불교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서기 538년 백제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불교의 역사가 시작됐죠. 최근에는 일부학자들에는 충분히 알

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일본 국보 제 1호로 지정된 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의 불상, 사찰건축 등 문화유산에도 한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한·일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한·일 불교계의 역할과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 '연기(緣起)'의 가르침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공생공존하며, 나 개인으로서도 도모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생명연계의 넓은 세계에서 '나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분위기 조성과 실천은 바로 양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불교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미래불교의 본연의 지세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찍이 종교는 어린이라고 비판된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과제를 정확히 파악, 종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필선 기자

김장철이다. 옛부터 입동무렵이면 집집마다 활동양식으로 김장을 하면서 일손과 배추쌈을 나누는 것이 우리네 세시풍속이다. 계절이 많이 변하다 보니 요즘은 김장김치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다. 공장 김치를 사 먹으면 일손도 덜고 간편하겠지만 어머니들의 손맛과 인정이 차츰 사라지는 것 같아 안스럽다. 김치 제조업자들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김치를 주문한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20~30대 맞벌이 부부들 이라고 한다.

## 목어

### '손맛'

젊은 주부들이 한국 식생활의 기본 식품인 김치·된장 만들기를 외면한다면 각 가정에서 지켜온 손맛은 머지 않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국민의 입맛은 획일화된 공장 음식에 길들여질 것이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 대신 분유를 먹고 자라는 세상인데 김치찌개와 김치찌개라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생 각깊은 어머니가 모유로 자식을 기르듯, 우리가 어머니들의 손맛을 전수해야 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일본의 식생태학자 스가와라 아키코 박사는 비행청소년을 만드는 음식으로 콘플레이크를 우유에 타먹는 미국식

아침식사와 점심으로 먹는 햄버거·콜라 등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온가족이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식탁 분위기라고 일러준다.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비디오로 봐야했을 때가 가장 슬펐다. 사는데 아니었다." 미국의 여성기업인 브랜더 반즈사(43)가 여성최고의 연봉자리 편서클라 북미지역 사장직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다.

중부지방의 경우 이달 15~20일이 김장절이라고 한다. 젊은 주부들이 팔 걷어부치고 김장을 했으면 좋겠다. 김치는 한국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음식으로

한국의 맛을 대표한다. 각 가정에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특유의 '손맛'을 살려낼 때 가족이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할 수 있다. 때문에 김치 담그기를 거부하는 여성은 한국의 어머니로서 자격 상실이다.

술날 '김치 인간문화재'를 지정하거나, 한국의 김치보다 일본의 기무치가 더 세계인에게 알려지는 비극은 없어야겠다.

"한국의 여성들이여, 김치종주국의 자리를 지킵시다. 가족건강 나라사랑이 그속에 있습니다."



## '97 문화유산의 해

### 11월 테마여행 - 운주사·쌍봉사

####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시려나"

늦가을의 고즈넉한 정취가 완연한 11월에는 운주사의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찾아 누운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세상이 바뀌는 민중들의 바람(願)을 들여보고자 합니다. 운주사의 탑과 불상들은 여느 사찰의 탑, 불상과는 달리 과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주지않는 평범한 눈과 구름 속에 자리한 쌍봉사는 기묘한 긴장감과 기대를 품게 하는 이색적인 절집입니다. 정면 1칸 측면 1칸에 3층목탑 모양을 하고 있는 대웅전의 고풍스런 모습과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첫순으로 꼽고 있는 철감선사부도탑의 정교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케 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우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 '불교문화 테마여행'

### 참가 안내

- ◇출 발: 11월 22일(토) 밤10시·조계사 앞
- ◇회 비: 4만원(조식제공)
- ◇안 내: 황호근(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제주도)

- ◇일 정: 12월 13~14일(1박2일)
- ◇장 소: 존자암지·법화사지·약천사·삼성혈·목석원·용두암 등지
- ◇동참금: 135,000원
- ◇인 원: 40명(선정호)
-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참가 접수도 함께 받습니다.



# 불교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투자

## 불교TV방송주식공모

거룩한 부처님 전에 귀의 하옵고, 불교텔레비전의 가족 모두는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불교텔레비전은 지구촌 불자가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맑고 건강한 방송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경영의 합리화로 후자경영의 이익을 불자님들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서원을 앞당기기 위한 밑거름으로 불자주식공모를 실시합니다. 불교텔레비전이 건설해 나갈 큰 불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1997(불기 2541년) 10월1일~12월15일
- 사찰 및 불교단체에 비치된 지로용지 또는 전국은행과 농·수·축협 및 우체국에서 지로번호 7614677번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20주 이상 (10만원)
- \* 불교텔레비전 후원회원 모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 3270-3300, 3347